



운전면허 신체검사 제도 개선에도 병원들 '나 몰라라'

2015-08-21 05:00 대전CBS 고희석 기자

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지만, 대다수 병원이 아예 이를 모르고 있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다.

홍보 부족과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개선이 필요하다.

일선 병원 15곳을 골라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을 의뢰한 결과 단 3곳만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.

나머지 12곳은 이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다른 병원을 찾을 것을 권유했다.

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과 병원, 종합병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

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, 올해부터 제도가 변경됐다.

제도 변경에도 병원들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.

정보 부족도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.

한 병원 관계자는 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아 차라리 (신체 검사서 발급을) 하지 않는 편이 시간 대비 병원 운영에 더 낫다”고 말했다.

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.

병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불편은 물론 큰 병원만을 찾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.

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“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, (발급을)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”며 “대책을 찾아보겠다”고 말했다.

이 기사 주소: <http://www.nocutnews.co.kr/4461090>